

第17回 全國圖書館大會 會議內容

日 時: 1979年 11月 30日(金)

場 所: 延世大學校

主 管: 延世大中央圖書館

參席會員: 266名

開 會 式

오전 10시 全國에서 모인 266名の 會員과 內外貴賓이 參席한 가운데 개최식이 行해되었다. 개최식은 國民儀禮에 이어서 宋 孝淳會長의 開會辭, 李宇柱 延世大學校總長의 환영사로 進行되었다.

特別 講演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延世大神學大學 閔경배 교수의 特別강연이 있었다.

特別講演의 主題는 “生の 現實과 理想”이었는데 이 講演에서 閔교수는 生の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現實과 理想과의 갈등을 解消시킬수 있는 것은 믿음 즉 신앙을 가지는 길 뿐이라고 역설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삶을 價値있게 領有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신앙을 갖지 않은 者가 신앙을 갖게되는 事例와 믿음을 갖인 者 또는 믿음이 없는 者라 할지라도 神의 存在를 경험한 事例가 우리들 生活를 통하여 體驗되고 있음을 매우 흥미있게 말하였다.

基調 演說

오전 11시 20분부터 40분간 行政涉外分科委員長인

尹泳大선생의 基調演說이 있었다.

기조연설의 主題는 “圖書館 行政改善을 위한 政策資料의 發展의 展開”—行政改革委員會 調査報告를 中心으로—이었다. 尹 先生은 기조연설에서 1963年 圖書館法이 制定 公布된 以來 처음으로 國家에서 圖書館發展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매우 鼓舞的인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行改委의 報告書가 作成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報告書를 中心으로 圖書館界의 意見を 提示할 政策資料를 마련키 위한 기조자료를 얻고자하는 目的으로 한 大會主題를 擇하게된 점을 설명하면서 이 報告書에 提示된 重要內容을 詳細히 紹介하였다. 아울러 이 報告書의 重要內容인 國立中央圖書館,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分野에 대한 것을 主題로 發表하게 될 것인즉, 이 大會를 통하여 發表者와 더불어 활발히 討議하고 훌륭한 意見を 提示하여 圖書館發展計劃의 指針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主題發表 및 討論

〈第1主題〉

「國立中央圖書館 發展計劃에 대한 再檢討」

鄭駟謨(中央大圖書館學科教授)

〈第2主題〉

「公共圖書館 發展計劃에 대한 再檢討」

李承周(서울市立東大門圖書館閱覽課長)

〈第3主題〉



〈開會式光景〉

「大學圖書館 發展計劃의 再檢討」
—특히 4年制 國立大學(校)를 中心으로—
崔貞泰(서울大學校圖書館)

各 主題發表後 討論과 意見제시가 있었는데 이를 要約하면, 圖書館에 對한 固執의 固定觀念을 버리고 概念定立을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國家代表 圖書館으로서 國立中央圖書館을 育成하고 國立中央圖書館을 中央館으로하는 地域 또는 機能別 圖書館組織 網을 形成하여 圖書館奉仕業務의 效率을 높이고 相互 協力을 도모하도록한다. 公共도서관은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에서 義務의으로 育成하도록하여야 하며 學校도서관, 專門도서관, 特殊도서관에 對한 育成策이 적극 이루어 질수 있도록 國家의 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大學도서관에 對한 主題를 발표한 崔貞泰先生은 國立大學을 中心으로 現況調査를 하고 이에 對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改善方案을 제시한바 이에 對한 意見을 장시간 交換하여 發表內容을 補完하여 政策資料로서 提供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었다. 기타 圖書館發展策에 對하여 여러가지 方向으로 討論이 展開되었는데 圖書館의 育成은 國家的인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圖書館自體의 奉仕機能을 強化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對한 구체적 자료를 整理하여 圖書館法改正案을 作成하는데 반영시킬과 아울러 政府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第5回 全國圖書館人體育大會 結果

日 時: 1979年 12月 1日(土)

場 所: 延世大學校

開 會 式

간단한 國民儀禮에 이어서 全國圖書館人들의 親睦과 相互結束을 굳게 다지고자하는 第5回 全國圖書館人體育大會를 開催함을 朴大權事務局長이 宣言하고 곧이어 경기종목인 배구, 탁구, 테니스 경기에 對한 對陳表를 作成하고 경기를 시작하였다.

參 加 員

배구: (관중별)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지구별) 서울, 경기, 전남
탁구: (관중별) 8팀 (지구별) 8팀
테니스: 8팀

戰 績

배구: 관중별: 우승 특수도서관(국회도서관)팀,

준우승 학교도서관팀, 지구별 우승: 경기도팀

준우승: 전라남도팀

탁구: 관중별: 우승 국회도서관팀, 준우승 연세대학

교팀, 지구별: 우승: 서울팀(광운전자)

경기도팀(대림공전)

테니스: 우승 국회도서관팀(홍영의, 길영환)

준우승 충남팀(원종린, 한성택)

施 賞

參加會員 全員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배구 및 탁구와 테니스의 관중별 및 지구별 우승, 준우승팀에게 각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되었다.

